

마리아 “마지막에 본 희망 ‘미스트롯2’…포기하지 마세요”

외국인 참가자 ‘최초 올 하트’ 받아…최종 12위

“개인 콘서트 여는 것 꿈…월드 투어도 들고 싶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성과가 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죠. 가수 포기 직전까지 갔어요. 부모님에게 ‘딱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스트롯2’만 출연해보고 결정하겠다고요. 제가 들었던 어떤 장르보다 트로트가 더 슬프게 들렸고, 그게 ‘한’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미스트롯’을 보면서 꼭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해 12월17일 TV조선 ‘미스트롯2’ 첫방송. 낯선 자제로 서 있던 마리아(21)가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이라며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의 첫 소절을 간드러지게 뽑아내자마자, 스튜디오가 들썩거렸다. “국적의 심 속출” 등의 자막이 달렸고, 1절이 끝났을 때 외국인 참가자 ‘최초 올 하트’를 받았다.

최근 충무로에서 만난 마리아는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가사가 어려워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며 뜻을 알아갔어요. ‘목포의 눈물’ ‘황성옛터’ ‘낭랑 18세’를 좋아한다”며 한국 옛날 가요 이름을 줄줄이 읊었다.

영화 ‘귀향’(2015)에서 흐르던 국악 선율에 빠진 이후 음악을 찾아 듣다가 트로트에 매혹됐다. ‘신사동 그 사람’ 등 여러 방송에서 부른 노래의 원주인공인 주현미를 유튜브를 통해 알았고, 좋아하게 됐다.

사실 마리아는 동물을 좋아하는, 수의사를 꿈꾸던 소녀였다. 강아지, 햄스터, 기니피그, 물고기 그리고 오리를 키웠다. 약 3년 간 채식주의자로도 지냈다. 달걀,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이었다. 화학, 수학 과목도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날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악은 어릴 때부터 흥미가 있었다. 매일 사

이러스, 아리아나 그란데 등을 좋아했다. 특히 그란데의 예쁜 음색, 고음이 신기하고 좋았다. 그렇게 음악을 계속 듣다가 유튜브에서 K팝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마리아는 “엑소 ‘뭉치 마이 베이비’,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멋있고 신났어요. 오랜만에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노래들이었다”면서 “완벽한 춤이었고, 너무 멋있고 예쁜 가수들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에 방탄소년단을 비롯 다양한 K팝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점차 한국에서 가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다. 마침내 2018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첫 방한이었다. “밤에 도착했는데 길이 넓고 깨끗했던 기억이 나요. 작은 차(다마스루 추정)를 봤는데 큰 미국 차와 달리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하.”

K팝을 좋아하기 이전에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컸다.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고 이모의 아들은 주한미군이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만약에 군인을 하지 않았으면, 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처음 흥대에 지취방을 얻었으나,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흥대에서 버스킹을 하며 불뺑간 사춘기, 에이리의 노래를 불렀으나 반응이 크지 않았다.

유튜브에 K팝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6’과 ‘유학소녀’와 JTBC ‘히든싱어6’의 김완선 편 등에 출연하며 눈도장을 받았다. 하지만 반짝 이슈가 될 뿐,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의 고기 위주 식문화로 인해 채식도 포기했

다. 한국에서 마지막 기회라 여기던 ‘미스트롯2’가 마리아에게 다시 희망을 줬다.

유리한 결승 진출 후보였던 마리아는 어렵게도 최종 12위에 그쳤다. 하지만 팬들이 크게 늘었고, 소속사도 생겼다. 가수 이도진 등이 속한 좋은날엔엔티에 새로 등지도 틀었다.

마리아의 한국 활동이 또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의 탁월한 한국어 실력 때문이다. 미국에서 독학한 2년을 포함 약 5년간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한국의 한(恨)이라는 정서를 공감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트로트를 소화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든 일인데, 한국어는 즐거워요. 특히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A는 상황에 따라 ‘아’ ‘에’ ‘애’ 등 발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한국어의 ‘ㅏ’는 항상 ‘ㅏ’로 발음하잖아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나이를 알아볼수록 한글로 쓸 때는 ‘살’을 붙이고, 90세처럼 숫자로 표현할 때는 ‘세’를 붙이는 것이 어렵긴 했어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 중심의 K팝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로트도 세계에서 통할까. 마리아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곡을 잘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노래였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사엔 외국인이 듣기에 편한 발음이 많았죠. 트로트를 영어로 번안해서 부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는다. 작곡 공부도 열심히 한다. 최근 미디를 이용한 작곡 작업해 폭 빠져 있다. 마리아는 “미국 팝은 주로 코드네 개를 고르고 그것을 변형하는데 K팝은 더 역동적이고 기승전결이 분명하며 애교적인 요소가 많다”고 봤다. “작곡 실력이 더 좋아지면 제가 만든 곡들을 앨범에도 넣고 싶어요. 헤이즈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 콘서트를 여는 것도 꿈이다. 월드 투어도



두고 싶다. (미국 북동부의) 코네티컷이 고향인데,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거든요. 그곳에서 콘서트를 열면 행복할 거 같아요. 트로트 매력도 전해야죠”라며 웃었다.

한국에 첫발을 내딛고 인천대교를 건너며 희망을 품던 3년 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음악이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방탄소년단 ‘봄날’도 넘겼다…11번째 4억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봄날’ 뮤직비디오가 4억뷰를 돌파했다.

5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2월 발매한 ‘윙스(WINGS) 외전: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 ‘봄날’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0시37분께 4억 건을 넘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통산 11번째 4억뷰 뮤직비디오다.

‘봄날’은 RM과 슈가의 경험담을 녹여 낸 가사와 서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이다. 멀어진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눈이 내리는 설원을 배경으로 한 편의 영화 같은 영상미에 일



곱 멤버의 소년미 넘치는 표정 연기가 더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박초롱, 학폭 의혹 “흠집내기, 법적책임 묻겠다”

고등학교 시절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측이 ‘학폭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제차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그녀와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그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이핑크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제보는 명백한 흠집내기이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으나 A씨는 사실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앞서 입장을 밝힌대로, 저희 또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플레이엠은 지난 1일 법무법인 원일을 통해 에이핑크 박초롱 관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뉴스스



전진, “라이브웍스와 계약 논의 중”

신혜성·이민우와 한식구 될까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이 소속사 CI ENT와

계약이 종료됐다.

CI ENT는 5일 “전진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며 “전진의 새로운 출발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진은 신화 멤버인 신혜성, 이민우가 소속된 라이브웍스컴퍼니와 계약을 논의 중이다. 라이브웍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이날 “서로 신뢰를 갖고 좋은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진은 지난 1998년 ‘신화’로 데뷔해 ‘해결사’, ‘티오피(T.O.P)’, ‘브랜드 뉴(Brand New)’, ‘와일드 아이즈(Wild Eyes)’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후 아내 류이서와 함께 SBS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호구의 차트’, ‘지구방위대’, ‘수미산장’ 등 다수 예능에 출연하며 유쾌한 매력을 선보여왔다. 그동안 가수와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만큼 앞으로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민시, 생계형 간호사로 변신…‘오월의 청춘’ 다음달 방송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



공유·박보검 ‘서복’, 독일·일본 등 56개국 선판매

공유·박보검의 감성 브로맨스 ‘서복’이 전세계 56개국에 선판매된 가운데 해외에서도 개봉 일을 속속 확정 짓고 있다.

5일 배급사 CJ ENM에 따르면 ‘서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영화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에

서도 독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56개국에 선판매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 중 대만과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은 4월 15일 국내외 동시 개봉을 확정 지었다. 일본과 독일

배우 고민시가 KBS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에서 1980년대 생계형 간호사로 변신했다.

오는 5월 3일 첫 방송되는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시 분)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다.

고민시는 3년 차 간사 ‘김명희’를 맡았다. ‘백의의 천사’보다는 ‘백의의 전사’에 가까운 씩씩함 가진 캐릭터로, 녹록지 않은 삶에도 꿈을 잃지 않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5일 공개된 고민시의 첫 스틸사진에서 고민시는 레트로 스타일링을 완벽 소화했다. 울려 묶은 간호사 캡과 녹색의 유니폼이 80년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등도 개봉 준비 중이다.

‘서복’의 해외배급을 담당할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 공유와 박보검의 만남과 복제인간이라는 참신한 소재, 영화가 가진 색다른 분위기가 해외 바이어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5일 극장과 티빙(TVING)을 통해 동시 개봉한다.